

#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29주일 2016.10.16.(다해) 제2021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http://www.daegu.jubo.or.kr



이동성당 제대 위 십자가상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 오늘의 전례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루카 18,8)

우리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기도하기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졸군 조르는 과부의 비유를 드시며,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선포하기로 다짐합니다.

**제1독서** 탈출 17,8-13

**제2독서** 2티모 3,14-4,2

**복음** 루카 18,1-8.

**입당송**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화답송**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성체송**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화살기도를 자주 바치겠습니다.”



## 끊임없이 기도하기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 1. 홀로 기도하는 기쁨

고요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새벽 미사 복사를 서려고 종종 걸음으로 추운 언덕길 내려가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당에 일찍 도착해서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성당 판유리 창문 너머로 빨간 성체등을 보고 있으면, 마치 동화 속의 신비한 세계를 본 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체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떤 친구보다 편하게 속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 보다도 안온하게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자리는 홀로 저를 기다리시는 성체 앞이었습니다. 소설 속의 돈 까밀로 신부가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투정부리고 툭툭거리듯, 저도 성체 앞에서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고3 시절에도 저녁 식사시간을 아껴 학교 근처 성당에서 매일 성체조배를 했지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은 그토록 감미롭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 2. 메마른 기도 생활

부푼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좋았던 기도시간이 날이 지날수록 급격히 메말라갔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30분 남짓한 묵상시간만 되면 눈꺼풀은 천근만근에 고개가 방아깨비마냥 계속 허공을 가릅니다. 옆자리 동기가 찌르고 흔들어가며 깨워 줘도 삼 분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공부를 못했지만 신부가 된 경우라면, 부끄럽게도 저는 묵상시간마다 졸면서 서품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품 안이 너무도 편안해서 그분 안에 쉴 수

밖에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내심 묵상시간마다 졸고 있는 제가 한심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축구장에서 뛰어다니다 온 친구들도 묵상시간만큼은 흔들림 없는데, 저는 왜 이럴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나랑 하느님이랑 둘만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휘방 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열과 오를 맞춰 앉아서 묵상 시작, 묵상 끝 신호를 기다리는 신학교 성당의 풍경은 재미있고 따듯했던 추억 속의 기도시간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 3. 기도는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 신학교 묵상시간마다 졸던 제가 어느덧 기도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하나 고민하는데, 신학교 시절 은사들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감각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기도시간이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하느님께 시간을 봉헌하라,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신학교 시절의 그 딱딱한 묵상시간은 기도의 기본을 가르치는 전통어린 시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안되던 기도를 스무 해 넘게 하고 나니 기도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기초중의 기초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주도권을 받아들임으로써 아집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시간인 것입니다. **▶**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연중 캠페인

## 노인, 바로 그 자비 안에서...

송정준 알베르토 관장 |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자비의 희년을 보내며 지난 2월 대구대교구가톨릭사회복지중사자들은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의회의 권고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Caritas Christi urget nos).(2코린 5.14)라는 주제로 영성 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느님 자비를 만난다는 것은 형제 자매들을 자비롭게 대한다는 의미이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자비의 희년이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 더욱 잘 섬기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계층이 바로 노인세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8명 중 1명이 노인이고 2030년이 되면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변화를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노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과거엔 노인이라고 하면 근로능력이 없어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지대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교회를 비롯한 많은 노인복지기관들이 그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매우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칩니다.

UN에서 발표한 연령기준을 보면 0~17세가 미성년, 18세~65세가 청년, 66세~79세가 중년, 80세~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이 장수노인이고, 세계적으로도 노인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인이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노인들에 대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역할

을 하시기에 힘들고, 대접이나 도움만 받아야 하고, 무엇인가 부탁드리기에 죄송한 분들로 인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1천여 명의 어르신들은 통상적인 노인에 대한 인식이 무색하리만큼 활력있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70~80세가 넘어도 각자의 취미에 맞는 왕성한 신체활동을 하시고 스마트폰 활용과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유화나 수묵화를 배우며 작품전에 나가기도 하시고 포켓볼과 당구 등을 즐기면서도 틈틈이 자서전을 쓰기도 하십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축제 때에는 직접 부스를 차리고 학생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주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밥 묵고 놀아라~”

묵주 기도의 성월인 10월은 사회에서 제정한 ‘경로의 달’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기쁨”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사회적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인간의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파고 들어가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178항)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일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더 이상 사회의 짐이 아니라 한평생을 살며 쌓은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완숙(完熟)한 존재로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 젊은 세대들과 공동체를 위한 귀한 자산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필문**



## 목주 기도 성월

목주 기도 성월은 목주 기도를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성모님의 모범과 전구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이웃에게 미치기를 청하는 달입니다. 목주 기도의 본래 말인 로사리오(Rosarium)는 장미 화원, 또는 장미꽃 다발을 뜻하는 말인데, 주의 기도 1번과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이 합쳐져 1단을 이루고 이것을 다섯 번 반복함으로써 5단을 바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 전까지는 목주 기도를 통해 묵상하는 주님 생애의 신비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의 3종류 15가지였으므로 완전한 한 꾸러미로 바치면 15단이 되었지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새로이 빛의 신비 다섯 가지를 더하셔서 지금은 20단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 종류의 신비를 묵상하며 한 번에 5단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바쳐도 됩니다. 목주는 보통 5단 짜리가 가장 흔히 쓰이지만, 반지나 팔찌와 같은 형태의 1단 목주도 있고 드물게 7단이나 15단, 20단으로 된 긴 목주도 사용됩니다.

목주 기도는 누구나 쉽게 바칠 수 있는 기도이고, 실제로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목주 기도가 급이 낮은 기도, 그저 경문을 달달 외기만 하는 기도인 것처럼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주 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와 성경 말씀에서 따 온 성모송으로 이루어진 탁월한 기도입니다. 목주 기도는 물론 경문을 외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일생과 구원의 신비를 생각하며 바치는 훌륭한 묵상 기도이고, 심지어 목주 기도를 통해 기도생활의 최고봉인 관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같은 경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소란한 정신이 잠잠해져 묵상에 깊이 빠져들도록 도우며, 성령께서 잘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도록(로마 8,26 참조)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생활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교우들은 지금 당장에라도 시작할 수 있는 목주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기도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신자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숨을 쉬고 한 달쯤 있다가 또 쉬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꾸준히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삶 안에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막상 막막한 일이 터져야 비로소 주님께 매어달리기보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주님께 늘 기도의 제물을 봉헌하고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꾸준히 바치는 목주 기도입니다. **필문**

재미있는 교회 상식

## 미사보(미사수건)

미사 시간이 되면 자매님들은 머리에 미사보를 씌웁니다. 새하얀 미사보를 쓰고 있는 자매님들의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미사보는 미사를 비롯한 교회 예식에서 여성신자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을 말합니다. 이는 초대 교회부터 전해 오는 관습으로 세례성사를 통해 얻게 된 부활의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화려하게 치장한 머리를 가려 정숙함과 겸손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성신자들이 미사보를 쓰게 된 것은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 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1코린 11,3-5)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머리를 가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관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3세기경부터는 주교님들이 동정녀들에게 그리스도와 맺어진 영성적인 혼인의 의미로 베일을 축성하여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수녀님들이 쓰고 계신 베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신자들도 소박한 생활과

정숙한 몸가짐의 표현으로 미사전례 때 미사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이나 전례규정 어디에도 미사에 참례하는 여성은 반드시 미사보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외국교회에서는 대부분 미사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여성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할 때만큼이라도 가급적 미사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성사 때 회개와 용서, 속죄의 의미로 대모는 대녀에게 미사보를 씌워줍니다. 이런 관례에 따라 미사보는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신자들도 쓸 수 있으며, 미사보라고 해서 미사 시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체 조배 등 기도를 드릴 때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문**



## 교구 행사

### ■ 5대리구 교구장 대리 취임미사



5대리구 교구장 대리 서경돈 신부 취임미사가 10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원평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 제3회 노인의 날



사진제공 : 월간빛

제3회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8일(토) 오전 10시 30분 남산동 성김대건기념관에서 미사와 시니어 성가경연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 ■ 대구 카리타스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사진제공 : 월간빛

대구 카리타스 창립 25주년 행사가 10월 8일(토) 오전 10시 30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관계자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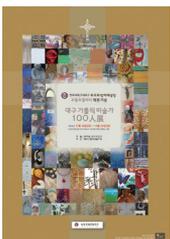
### ■ 성요셉성당 새 성전 봉헌식



사진제공 : 월간빛

조환길 대주교는 10월 9일(일) 오전 10시 성요셉공동사제관을 축성하고, 성요셉성당(주임 : 손무진 신부) 새 성전 봉헌미사를 봉헌하였다.

### 천주교대구대교구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갤러리 개관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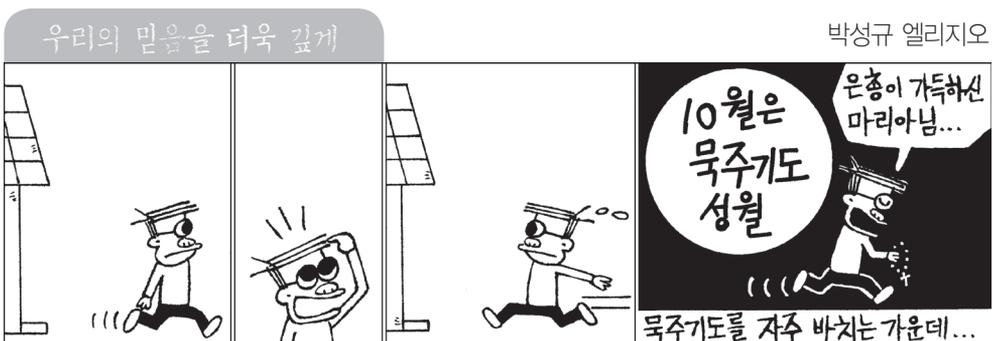
#### < 대구가톨릭미술가 100인전 >

1부 초대작가: 10.22(토)~11.3(목) 오픈식: 10.22(토) 17:00

2부 초대작가: 11.5(토)~11.20(일) 오픈식: 11.5(토) 17:00

장소: 드망즈갤러리(범어대성당 1층) / 주최: 천주교대구대교구 / 주관: 대구가톨릭미술가회

※ 초대작가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 교구 알림 참조



## 미 사 안 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0월 17일(월) 10:30 범어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7일(월) 11:00 순례자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7일(월) 11:00 계산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0월 19일(수) 19:00 신명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20일(목) 10:00 평화성당

### 성소 | 피정

#### 부산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일일 피정

일시: 10.23(일) 10:00~17:00  
 장소: 부산 본원 / 회비: 무료  
 주제: 성모님의 삶\_마음의 선교사  
 대상: 35세 이하 남녀 미혼 청년  
 문의: (010)4203-3217 / (010)9330-3104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10.23~26 / 10.30~11.2 / 11.4~7  
 11.9~12 / 11.15~18 / 11.24~26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익집, (064)796-9181

### 교육 | 모집 | 기타

#### 성녀글라라 영성 강좌 모집

기간: 10.22~17.4.22 매월 넷째주(토)  
 시간: 14:00~17:00 / 강사: 김찬선 신부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성당 뒤)  
 주최: 재속프란치스코회 / 5만원  
 문의: (010)3839-9203

#### 10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 신앙 특강

일시: 10.22(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극복 / 강사: 임효덕(레오)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성가반주법, 우쿨렐레,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성인생활영어회화, 뎃생·유화·수채화 / 문의: 476-6211(1호선 교대역)

#### 백합어린이집 입학설명회

일시: 10.20(목) 10:30  
 장소: 어린이집 강당  
 영유아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문의: 256-6862

#### 2017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예정): 10.31(월)~11.11(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유아교육대학원 신설)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 660-5512~3(특수)

#### 제7회 골드링캠페인 건강 강좌

일시: 10.26(수)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테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관절 통증 제대로 알기  
 강사: 류마티스내과 최정운 교수

####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자: 11.20(일), 김범우순교자성지

신청: 10.19(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 요양원 입주 및 채용

입주자격: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채용분야: 요양보호사(팔달교 근처)  
 문의: 파티마홈, 324-1188

####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자녀)갈등, 가족 문제 등 / 이용방법: 전화, 내방(무료상담), 사이버상담  
 문의: 253-1405~6

####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효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울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한복의 모든 것, 명장의 손으로  
 T. 053)421-2827~8  
 HP. 010-3826-2827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센터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통합의료진총회  
**전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기철(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덴마크·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메오르) 010-3514-3855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0월 17일(월)은  
(故) 이창호(안드레아) 신부  
선종 8주기입니다.

비용: 음악회 입장권 1만원  
(점심 제공)  
문의: (054)970-2203

**채용 | 안내**

**성서성당 여사무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마감: 10.30(일)  
문의: 성서성당, (010)3507-8664

**서정길 대주교재단 수지의집 취사원 채용**

모집: 여자청소년생활시설 취사원(정규직)  
자격: 조리사관련 자격증 / 운전가능자  
월 2회 당직 근무 가능자  
마감: 10.20(목)  
문의: 수지의집, 741-3122

**가톨릭신문사 신입 경력 직원 채용**

직종: 편집·취재기자, 편집국자료실사  
원, 총무국사원(나이·학력 제한없음)  
마감: 10.31(일)  
문의: 가톨릭신문사, 251-0710  
<http://www.catholictimes.org>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정민(라우렌시오), 채혜란,  
배운정(테오도라)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교구에서 출자하고 운영 중인 상  
조회사는 (주)매일상조 한 곳 뿐입  
니다. 이 외에 '가톨릭'이라는 상  
호를 사용하는 장례업체는 교구  
와 무관합니다.

**행사 | 모임**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0.17(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대구가톨릭문인회\_글과 그림전**

기간: 10.24(월)~30(일)  
장소: 교구청 내 안익사  
개막식: 10.25(화) 9:30  
집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문의: 문인회 사무국, (010)2505-0504

**가톨릭사진가회 정기 사진 전시회**

기간: 11.1(화)~5(토)  
장소: 교구청 내 안익사마당  
문의: 가톨릭사진가회, (010)4043-7307

**대구성령봉사회 2박 3일 성령 세미나**

기간: 11.11(금) 14:00~13(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  
신청비: 12만원(차량이용비: 1만원 별도)  
신청: (054)954-0951 / (010)4461-4419

**왜관수도원 전교 주일 행사**

일시: 10.23(일) 9:30~17:00  
내용: 미사, 전시회, 강연, 음악회

**교육 | 모집**

**34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10.27~12.1(매주 목) 9:30~14:30  
11.17(목) 수능으로 인한 휴강  
장소: 화원성당 / 10만원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116차 교구 청년국 선택주말**

기간: 11.11(금)~13(일)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35세 미만 미혼  
문의: 이현정, (010)4248-8823  
<http://cafe.daum.net/daeguchoice>

**제22기 뿌에리칸뜨레스 합창단원 모집**

대상: 초등3~초등5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53차 선교대학**

쉽고 편한 선교 방법  
일시: 10.22(토) 10:30~16:00  
장소: 계산문화관 (수강료, 점심 무료)  
문의: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가톨릭신자를 위한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일본성지순례”**  
후쿠오카, 히라도, 나가사키  
\*출발일: 11월 23일 (3박 4일) / 대구 출발 · 도착  
**T. (053)253-3399**  
조 협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의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치질수술 내시경 건강검진 **通** 하는 병원  
대형주치장 원비 / 여성전문임원실  
[www.hangmuns.com](http://www.hangmuns.com)  
신경총 **한의원**  
노성균 신경총 전문병원  
병원장 노성균 신경총 전문병원  
대우아파트 앞 **959-7175**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 ·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